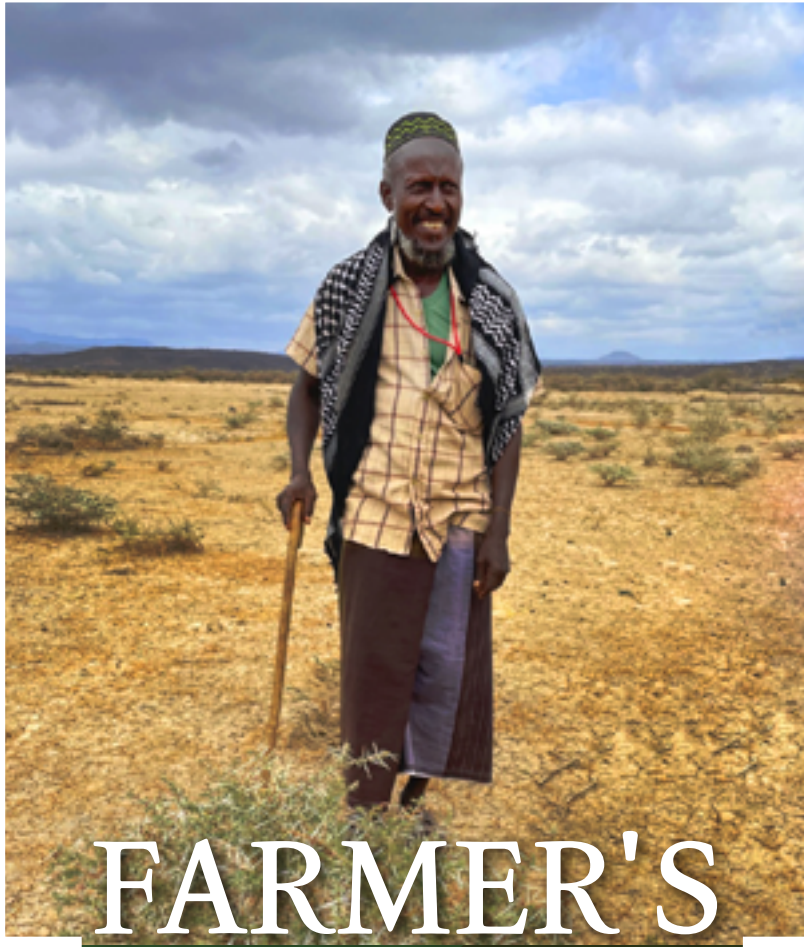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마을 | 파머스 드림 SPRING & SUMMER Vol.01



# FARMER'S DREAM 2022

다섯 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염병

방글라데시 응급키트 지원  
태권도 교류전 장학금 지원



## | 기관소개

### 파머스드림은?

도농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생계 자립 및 빈곤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 전문 NGO입니다.

### 지속가능발전(SDGs) 목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최대 공동목표



### 농업과 시작하는 빈곤퇴치

국내외 저개발국가 농촌지역 농민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탄력적인 경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 농촌을 넘어 도농상생 협력

식량 공급에 한정돼 있던 농촌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인식 개선과 함께 농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커버스토리

해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르신**,  
지부티 안다바 마을의 **총장님입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을 **걱정뿐인 총장님은 얼마 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작게나마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에 도전해**  
보자는 것이죠. 안다바 **사람들은 과연, 척박한**  
이 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 CONTENTS

04

## [캠페인]

- 다섯 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염병
- 산불과의 사투, 식사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 사막 기후 ‘안다바’ 주민들이 꾸는 농부의 꿈
-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날이 올까요?

10

## [해외사업]

방글라데시 응급키트 지원  
지부터 무료급식

12

## [후원자 인터뷰]

“도울 수 있어 감사해요!”  
모금 현장을 울린 한 마디

14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  
-수정초등학교 간식 나눔

16

## [물품후원]

매일유업, 그룹 에이티즈,  
가수 김우석

18

## [후원자 인터뷰]

30년 정치 인생이 깨우쳐준  
‘나눔의 가치’

20

## [이벤트]

제1회 태권도 교류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22

후원안내

### (사)파머스드림 2022 정기간행물 (1호)

발행인 | 이형권

발행일 | 2022년 06월

발행처 · 기획 및 편집 | 사단법인 파머스드림

편집디자인 | 브라이트프렌즈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가동 비111호

홈페이지 | farmersdream.or.kr

대표번호 | 1666-6203

이메일 | farmerdream11@naver.com

# 다섯 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염병



**세계 말라리아의 날** 매년 4월 25일은 롤 백 말라리아(RBM, Roll Back Malaria)에서 선언한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RBM은 말라리아에 대한 국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8년 WHO 주도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출범한 국제 말라리아 퇴치 협력 단체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이 보다 더욱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말라리아(malaria)'입니다. 매년 2억명 이상 걸리는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이곳,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확인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24시간 내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데요. 특히 면역력 저하와 영양 부족 상태의 어린이가일수록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매일 5세 이하의 어린이 3,000여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며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0년 말라리아 사망자 수는 통상적인 40만명보다 약 23만명 많았으며 이 가운데 96%가 아프리카 국적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모기장'입니다. 말라리아 백신이 지난해 처음으로 WHO 승인을 받았지만, 예방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지만, 빈곤층에게는 몇 달러에 불과한 모기장 구입 비용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 “단 5달러, 누군가에겐 생명의 돈입니다”



세계 최빈국 지부티의 오지마을 '도라(Dorra)'는 말라리아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입니다. 당장 생계부터 걱정인 이곳 주민들에게 약 5~7 달러의 모기장(4~5인용)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각종 풀을 태우며 연기와 향으로 모기를 쫓아볼 뿐입니다.

설령 돈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에게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도시로 모기장을 구입하러 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돈, 5달러.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목숨을 구할 생명의 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사진 : 소방청 제공

## “산불과의 사투, 식사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1986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소방-산림당국에서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완진까지 무려 21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강력했던 화마로부터 모두 몸을 피한 순간, 불길 속으로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산불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관'입니다.

전국에 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소방관들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밤낮없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큰불이 잡히면 시작되는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 무거운 장비를 몸에 이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땅 이곳저곳을 파헤칩니다. 땅속에 숨은 작은 불씨까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까지 따라주지 않는 악조건에도, 소방관들은 213시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 곳곳에서 쏟아진 온정... 소방관 간식 후원



이 같은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간식 후원 캠페인'을 마련했는데요. 많은 후원자님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에너지바,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불이 어느 정도 잡힌 3월 17일, 직접 울진의 산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울진군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전해졌으며, 일부는 현장의 봉사자분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전달식 후 둘러본 울진의 한 마을은 폐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민 전체가 체육관으로 대피했는지 마을은 텅 비었고, 집 대부분은 잿더미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파머스드림 역시 관심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사막 기후 '안다바' 주민들이 꾸는 농부의 꿈



아프리카 지부티 공화국의 오지마을, 안다바(Andaba) 주민들은 요즘 농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50도까지 육박하는 이곳은 열대성 사막기후인데요. 땅은 척박하고, 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업은 목축이지만, 주변엔 가시덤불뿐이라 가축들 먹일 풀을 찾아 며칠씩 집을 떠나야 하죠.

이 탓에 주민들의 생계는 늘 힘들고,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량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주민들은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으니 도와달라고요.

주민들은 인근 마을 유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데다, 크기가 작은 탓에 농업용수로 쓸 만큼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저수지 옆에 '직접' 둑을 만들어 빗물을 모아 두려 합니다. 무모한 도전 같지만, 이들에겐 자급자족의 꿈을 이룰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안다바 주민들의 독짓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날이 올까요?

## 아프리카의 가난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 이곳에서 교육은 다른 시급한 문제들에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와 기록적인 가뭄으로 지난해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교육을 중단한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더욱 열악해진 교육 환경. 그러나 어렵게 학교에 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낡은 칠판에는 글을 써도 잘 보이지 않고, 시멘트 바닥 곳곳엔 금이 갑니다. 곧 무너질 듯 위태로운 천장 탓에, 아이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철이면 안전상의 이유로 집에 가야 합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위치한 '마이바호까 공립 초등학교(EPP MAIBAHOKA)'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위험이 산적한 교실에서, 마이바호까의 아이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고, 환한 미소를 짓게 될 날이 올까요?



# 방글라데시 응급키트 지원 반창고 한 개의 기쁨



수도 ‘다카(Dhaka)’의 판자촌,

‘밀뽕 6(Mirpur 6)’의 주민들은 하루 임금으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상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구비해 둔 가정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주민들의 응급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4월 20일, 구급키트를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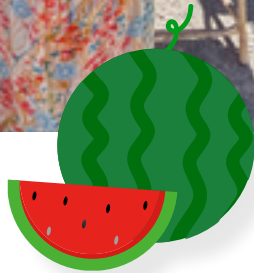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부티 무료급식

# '갈리나'의 미소를 찾아준 수박



## 이슬람 국가인 지부티에서는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난 뒤, 수분 보충을 위해 수박을 먹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갈리나'처럼 가난한 마을에서는 지친 몸을 회복할 음식조차 충분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하지만, 남들과 같은 '보통의 라마단'을 선물하고자 수박과 쌀, 대추야자를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도울 수 있어 감사해요” 모금 현장을 올린 한 마디



△ 충남 보령 개화예술공원

현장에서 직접 후원자님들을 만나면 한 번쯤 속연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해하는 분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분들, 따스한 격려와 응원을 건네주시는 분들까지. 이분들의 진심은 나눔의 힘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4월 29일부터 열흘 동안, 충남 보령의 개화예술공원에서 진행한 모금 캠페인은 이러한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농촌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파머스드림의 외침이 캠페인 현장을 울리면, 머뭇머뭇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고민한 뒤, “여유가 많지 않아 미안하다”며 그 누구보다 아쉬운 표정으로 후원을 신청해 주시지요. 이 귀한 마음이 그저, 가능한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할 따름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파머스드림은 농업 전문 NGO인 만큼, 국내 농촌 지역을 방문할 때가 많은데요. 주머니의 동전을 모두 꺼내 주여주시는 어르신, 얼른 집에 다녀 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시는 할머니 등을 만나곤 합니다. 캠페인 기간에 만나 뵈 한 아주머니의 말씀도 짙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흔쾌히 후원 서명을 해주신 뒤 돌아서는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외쳤더니, 밝은 미소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이렇게 도움 기회를 줘서 제가 감사하죠.  
제가 복을 받고 가네요!”**  
~~~~~

파머스드림에 큰 울림을 주신 후원자님의 한 마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 어려운 형편에도 8년간 나눔...

모든 후원자님과의 인연이 소중하지만, 캠페인 부스를 찾아주신 김상국 님과의 만남은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김상국 님은 5월 5일, 친구 분들과 나들이를 왔다가 파머스드림의 캠페인 현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파머스드림의 설명을 들은 뒤, 곧장 후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김상국 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임시조처만 해두었지요. 그런데도 이번 파머스드림 후원뿐만 아니라, 1대 1 아동 결연도 8년 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기에 나눔을 멈출

수 없었다는데요. “그 마을을 아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죠”라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김상국 님은 후원 중인 아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완쾌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몸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아이의 안녕을 더욱 소망합니다. “나누면 더 행복하다”는 김상국 님의 그 마음. 값진 진심이 헛되지 않도록 파머스드림이 노력하겠습니다!

# 100년의 시간 100년의 고민

“참된 소년이 됩시다, 늘 서로 사랑합시다.”

위 문장은 아동 문학가 방정환 선생이 1921년, 소년 운동을 시작하며 만든 표어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린이는 애기, 애들, 아이들 등으로 불리며 단순히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정환 선생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의 ‘어린이’라는 단어로 부르며, 어린이 역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는 취지의 행사였는데요. 방정환 선생은 이날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3만 6,50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동 학대, 복지 사각지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등을 떠올려 보면, 과연 우리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해왔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질문의 답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정말로 행복한가요?**”





# 78

男 37, 女 41

“아이들의 밝은미소,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78, 다소 뜬금없는 이 숫자는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수정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입니다. 남학생은 37명, 여학생은 41명. 전교생을 다 합해도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이지요.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의 도시로,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 78명이라는 전교생 수가 그리 낯선 것도 아닙니다. 교원도 모두 10명에 불과합니다.

평화롭기만 한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이곳에 파머스드림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나눔! 태권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과자류와 음료수를 전달했는데요. 아이들은 이날 맛있는 과자를 먹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머스드림은 앞으로도 농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가려 합니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밝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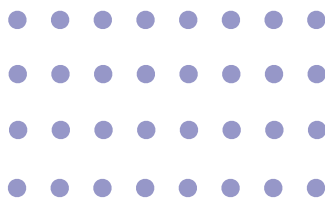
Children's Day

# 2,520

from. 그룹 에이티즈 님

올해 1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연초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앨범 나눔을 진행하고 싶다는 에이티즈 측의 감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이티즈의 첫 리패키지 앨범 2,520장을 후원 받았으며, 국내외 농촌 가정 등 필요한 곳에 전달했습니다.





# 2,472

from. 가수 김우석 님

가수와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우석님께서 세 번째 솔로 앨범 2,472장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김우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5,000

from. 매일유업 님

식량부족에 고통받는 저개발국가의 빈곤층을 위해 유제품 후원을 진행한 매일유업. 후원해주신 물품은 방글라데시의 저소득층 가정에 배분했으며, 영양부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0년 정치 인생이 깨우쳐준 '나눔의 가치'

- 최원철 후원자님

“결국, 다 함께 잘살자는 것”

정당인으로 30년 외길을 걸어온 최원철 후원자님이 인터뷰 말미에 꺼낸 말입니다.

정치의 기본 원칙과도 같은 이 말을 곱씹으며 살아왔더니 자연스레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후원자님.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파머스드림에 후원해 주신 최원철님을 만나 나눔의 의미와 농촌 현실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 Q & A

인터뷰 본문  
자세히 보기



Q. 파머스트림에 후원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공주가 도농 복합도시예요. 파머스트림에서 도농 상생 협력과 농촌 생계자립 지원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주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라서 이에 동참하고자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Q. 공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요. 공주시의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한 책도 출간하셨죠?

공주에서 나고 자란만큼 애정이 크죠. 책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아산, 공주 등이 연계해 충청권의 메가시티\*로 발전하자는 주장을 담았어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Q. 농촌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나요?

최근 들어 농업인구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경작 면적은 넓어졌어요. 어르신들이 생계 문제로 농사를 짓다 만 땅에 젊은층이 들어와 큰 면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국가 재정의 약 20%가 농업 예산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2% 정도예요. 예산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해요. 스마트팜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생산성이 증대되고, 궁극적으로 농촌 활성화로 이어지겠죠.

Q. '선한 일'에 관심을 가져온 이유가 있나요?

정당마다 실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것'이에요. 정당 생활을 하며 공주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왔는데, 그게 정치활동을 할 때도, 개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 파머스드림 후원 제1회 태권도 교류전

농촌 발전의 첫걸음,  
지역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스포츠 대회 참여 기회가 적은 농촌의 아이들. 이를 개선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파머스드림은 앞으로 연 2회 태권도 교류전을 열고자 합니다.

첫회는 4월 17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아이들은 태권도로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위 15명의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장도 수여했는데요. 하반기에 열릴 두 번째 태권도 교류전도 기대해주세요!





## Farmer's Dream 농업인 자녀 장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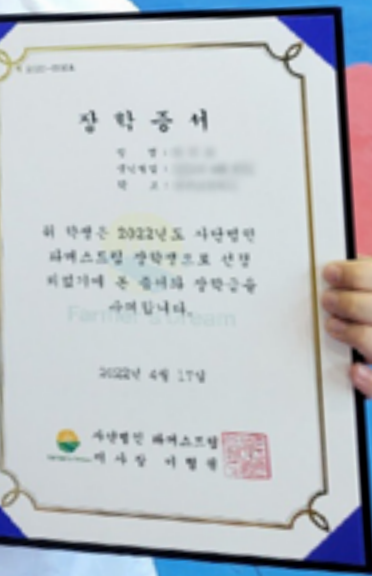
파머즈드림은 농촌 지역의 생계자립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전을 기념해 참가자 중 5명의 학생을 선정,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장학금 지급 대상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TAEKWONDO





## Farmer's Dream

###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마을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공부가 하고 싶은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 우리 농촌 지역의 태권도 꿈나무,  
이 밖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내외 농촌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파머스드림은 언제나  
농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기업 및 단체 후원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파머스드림 기념 **현판**을 선물해 드립니다!

파머스드림 후원하기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후원·봉사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촬영 후 '파머스드림'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 보내주시면 가입신청이 완료됩니다.

추천인  
연락처



# 파머스 드림 후원회원가입 신청서

## 기본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직장 ○ 자택)

후원금액 ○ 월 2만원 ○ 월 3만원 ○ 월 5만원 ○ 월 10만원 ○ 기타 (  ) 월

## CMS자동이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명  유효기간  월  년

카드번호  소유자명

후원은 매월 5일(잔고 부족 시 15일 혹은 25일) 진행되며, 첫 후원은 가입 후 당월 가까운 출금일에 '파머스드림'(카드 결제 시 '나이스 후원금' 등)으로 처리됩니다.

극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여부  신청함  신청 안 함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160조의3, 법인세법제112조의2 및 통법 시행령 155조의2, 에 의해 5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수집구분 : 필수사항
- 수집항목 : 금융기관(카드)명, 출금계좌(카드)번호, 계좌(카드)주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카드유효기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집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소득공제 발급 및 국세청 신고, 후원 활동을 위한 후원자 관리 및 행정 처리, 후원금 결제 및 후원자 서비스 제공
- 보유기간 : 수집 및 이용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설명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제공 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휴먼 소프트웨어, 국세청, 나이스정보통신
- 제공항목 : 금융기관(카드)명, 출금계좌(카드)번호, 계좌(카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카드유효기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은행 등 금융회사 및 청구기관(이용기관)보유)
- 제공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자동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보유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설명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